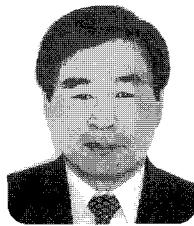


창간 24주년

특집

양돈업의 미래 “친환경 유기 양돈”

한국형 유기축산의 기술과 가능성



오상집 교수
강원대학교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축산업의 지속적 유지와 친환경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기축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집약형 양돈업이 발달한 경우 고투입, 고환경오염부하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 양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사육밀도나 생산집약도, 사료 및 첨가제의 투입 정도, 양돈장 분뇨 폐기물의 처리 및 자연 재순환 정도를 살펴볼 때 이미 친환경 지속 양돈과는 다른 길로 접어든 상태이다.

이러한 양돈업의 현 상황은 이제 우리 양돈업의 살길이 친환경 유기 양돈으로의 방향전환에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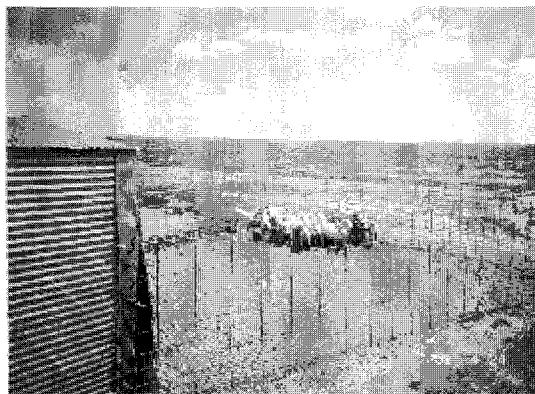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축산, 친환경축산, 유기축산에 대한 역사가 매우 짧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나라의 환경여건과 다른 점이 많아 유기축산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못하였고, 그 기술적 이해도 초보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양돈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유기축산 기술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2. 유기축산의 개념과 한국형 유기축산

가. 유기축산의 개념

유기축산의 근본적 개념은 한마디로 「자연과 부합하는 환경에서 동물의 자연적 생리 및 습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생태계와 환경을 교란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축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속성의 유지란 자원활용의 지속성뿐 아니라 환경, 경제행위, 사회의 지속적 영위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유기축산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축산을 통한 토양 및 토질의 생력유지
- 자연시비 및 관리를 통한 유기사료의 생산과 이용
- 해충, 질병, 미생물의 자연생태적 제어
- 동물의 자연 생리 및 습성에 가까운 번식 및 관리
- 자연생태계 총화의 관점에서 축산 접목

위와 같은 유기축산의 특성은 매우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 유기 축산기술의 개발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유기축산의 주요 특성을 유기양돈의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돼지에게 충분한 운동공간, 목초지 제공

- 유기사료의 급여(유기사료 최소급여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음)

- 돼지의 질병이나 해충을 자연 민방요법으로 제어

- 유기돼지로부터 생산된 자축의 사육

- 유전자 조작을 금하고 종의 다양성 유지

나. 한국형 유기축산

유기축산의 여건은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에서 펼쳐지는 유기축산의 세부적 특성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유기농업에서 축산을 자연 전체의 순환과 유지의 일부분으로 보고 그 총체적 균형이 유지되는 한 기술적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유기축산은

〈표 1〉 한국형 유기양돈의 차별적 특성

항목	한국형	일반형
전환기간	6개월	2년 권장
유기사료 급여비율	한시적 80%	80~100%
자급 유기사료 비율	없음	0~50%
1인당 사육규모	규정없음	일부 국가 규정 (비육돈 750두/년/인)
운동장, 초지 면적	Codex기준 운동장, 초지 구분없음	일부 확장 경향 일부 초지 필수
사료수급	~100% 수입	자국생산 가능
돼지복지	자유이동 가능	세부시설, 관리기구 규정등장
유기양돈 인증	국가기관	공인 사설기관
유기돈육 가격	?	+31~150%

한국의 축산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농경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사료의 자급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유기 축산 여건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 규모나 소비성향, 가축권리 및 복지에 대한 일반적 이해, 축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형 유기양돈을 대별하여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형 유기양돈 규정은 Codex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Codex가 아직 규정하지 못하거나 임의성을 허락한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반면 유기양돈이 상당히 진전된 국가나 유기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시장이 궤도에 이른 국가의 경우 자국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유기양돈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3. 유기축산의 가능성

유기축산이 태동되면서 축

산업계 및 양축가의 또 하나의 관건은 우리나라에서의 유기양돈을 비롯한 유기축산의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일 것이다. 이는 유기축산을 주로 경제적 소득창출의 관점에서

그것도 미시적 관점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유기축산은 기존의 집약, 고투입 동물생산 방식이 향유했던 고능력, 대량생산의 경제적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 아니다.

유기축산을 자연순환의총체적 농업의 일부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유기축산의 가능성도 보일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생산의 균형조절과 친환경 성 회복,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문제에 미흡하게 대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축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축산의 가능성, 특히 경제적 타당성은 유기축산의 정착, 유기농업의 정착, 축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 구축, 농업의 지속성 및 친환경 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개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저자원국가의 경우 유기축산의 정착으로 기존 집약·고투입 축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서구 국

소비자와 생태환경을 떠난 농업이나 축산기술은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 당하여 결국 축산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소비자와 지구환경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서 신뢰회복을 통하여 새로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기양돈을 가능케 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를 열거하면

- ▲국내산 유기사료 지원의 개발에 역량 집약,
- ▲수입 유기사료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 ▲국내 환경에 강한 유기종돈의 생산,
- ▲유기돈육의 품질 차별화 및 가격 프리미엄 체계 확립 4가지이다.



가를 중심으로 유기축산, 천연축산이 기존 축산을 대체하는 움직임은 가시화되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에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존 관행 축산 방식을 집착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유기축산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따른 특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기축산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대비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유기양돈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산 유기사료 자원의 개발에 역량 집약

② 수입 유기사료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③ 국내 환경에 강한 유기종돈의 생산

④ 유기돈육의 품질 차별화 및 가격 프리미엄 체계 확립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기양돈에 관심이 많은 양축가들이 유기사료의 가격과 유기돈육

의 가격 프리미엄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유기사료 원료의 국제 가격은 곡류의 경우 기존 곡류에 비하여 약 30~35%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반면에 유기돈육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 돈육에 비하여 30%~150%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국가의 경우 유기축산물 및 농산물 시장은 매년 20~30%씩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유기축산의 경제적 전망이 매우 밝음을 시사하고 있다.

4. 결 언

이상으로 한국형 유기축산의 기술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 유기양돈을 중점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유기축산이 갖는 근본적 의미가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생산 시스템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한국형 유기축산 기술을 계량화하여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유기축산을 비롯한 유기농업은 이제 세계농업과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한국형 유기 축산기술과 가능성 향상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유기축산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소비자와 생태환경을 떠난 농업이나 축산기술은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여 결국 축산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소비자와 지구환경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서 신뢰회복을 통하여 새로이 열리게 될 것이다.

유기축산, 결국은 해야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자세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명제이다. 왜냐하면 이제 급변하는 세계농업 및 축산업의 역동성에 매번 뒷북만치는 농업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는 없는 시점에 한국의 축산업이 서있기 때문이다. **양돈**

